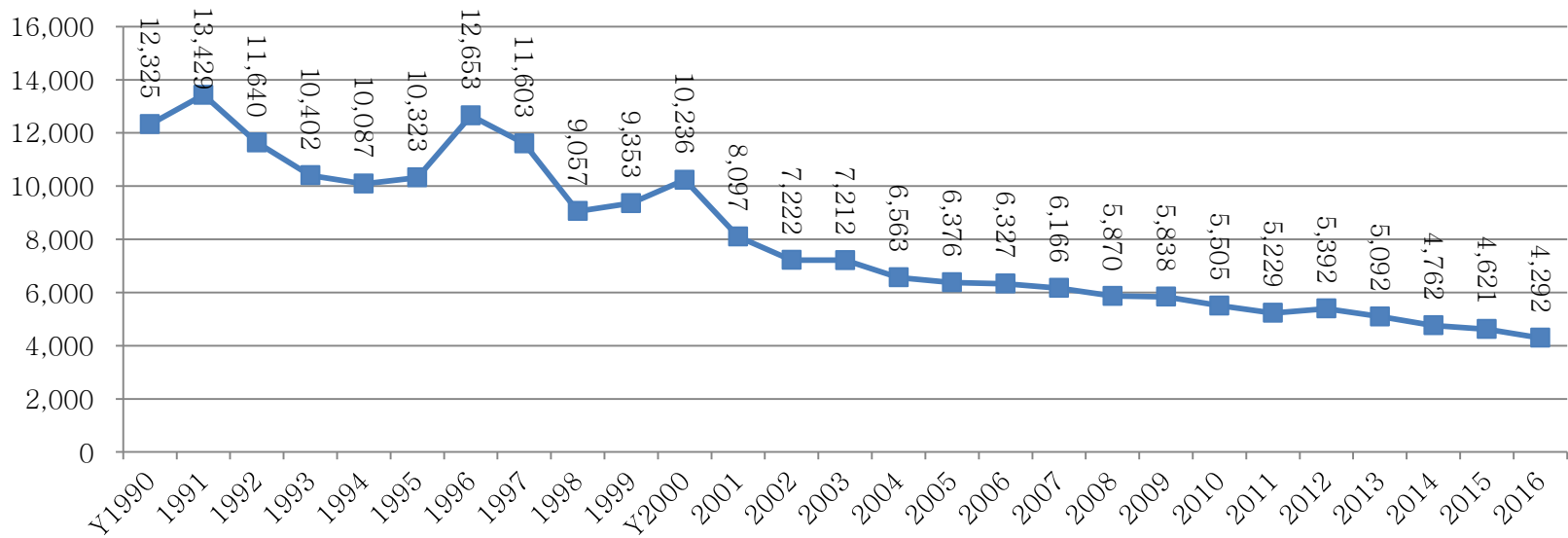


# 교통안전 특별회계 꼭 필요합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윤호

- ◆ 1991년 13,429명에서 2016년 4,292명으로 감소
- ◆ 1991년~2004년, 13년만에 교통사고 반감기 달성
- ◆ 하루에 12명이 도로에서 희생, 연간 180만건 교통사고



- ◆ 한국 고속도로 인프라 OECD 6위...교통사고 사망은 2위
- ◆ 평균 교통량 전년比 4.2% 증가...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평균 2배
- ◆ 자동차수 ↑,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었지만 그래도 OECD 하위권
- ◆ 과속·신호위반 ... 운전하기 무서운 나라, 한국
- ◆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평균 5배
- ◆ 한해 평균 어린이 101명 교통사고로 사망...보행 중 사망이 62%
- ◆ 초등생 숨진 스쿨존, 인도 없이 10년 방치 '위험천만'

-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한국은 10.1명으로 가입 32개국중 29위
-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한국은 2.3명으로 32개국중 30위
- ◆ 자동차 10억 주행 KM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한국은 22개국중 22위 : 자료 미제출국 제외
- ◆ 최근 13년간(2000~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비교
  - 한국(감소율 50.3%)는 OECD 비교대상 31개국중 21위
- ◆ 높은 국격과 비교하여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후진국 수준임

## ◆ 2016년 정부제출 예산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관기관	회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경찰청	일반회계	교통안전.소통 확보	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교육홍보	3,462	
				교통안전활동	71,578	
	지역발전특별회계	교통안전.소통 확보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교통과학장비관리	94,246	
				도로교통공단출연금	96,349	
국민안전처	일반회계	안전정책	도로교통사고 예방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100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9,000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1,00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자동차 및 교통정책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통사고 예방	3,378	
			자동차안전도강화	자동차안전도강화	10,591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 및 튜닝 활성화	1,000	
			교통안전공단 출연	교통안전공단 출연	34,005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관리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교통계획 및 평가	교통정책 종합연구	1,120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국가교통조사	6,960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68,650
		위험도로개선	위험도로개선	85,000		
합계					598,180	
직접적인 교통안전예산					362,759	

## ◆ 예산부족

- 기획재정부 :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예산 지속 축소
  - ('13) 911억 → ('14) 394억 → ('15) 287억 → ('16) 220억 → ('17) 124억
- 국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8%에 불과
- 나머지 90%는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도에서 발생
-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어 중앙선도 못 그리는 실정”임에도 교통안전 개선 시설 개선요청 신고건수 3년간 3배 이상 급증
  - 2014년(18,766건) → 2016년(56,734건)

\* 자료 :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5, OECD

## ◆ 재투자 필요성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단속시 “세금이 부족해서 돈 걷으려 한다”는 취지와는 다른 국민적 의견 발생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태료는 교통질서를 해하는 범칙행위를 제재 및 장래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부과·징수
- 국민 설문조사 결과 91.5%(605명/661명중)는 “교통범칙금 과 과태료는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에만 사용해야” 답변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은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당연하다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인식임

\* 자료 :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5, OECD

### ◆ 투자의 효과성도 나타남

- 과거 자특회계(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시행기간  
(노무현정부, 2003~2006) 동안 사망사고 14.6% 감소 효과 거양

구 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연 도	2,002년	2,007년	2,012년
사망자수	7,222명	6,166명	5,392명
감소	-	1,056명	774명
감소비율	-	-14.6%	-12.6%

### ◆ 활용 당위성

- 현재,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중임
- \* 국회 예산정책처, 『‘17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범칙금·과태료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 언급



## ◆ 교통범칙금은 쌈짓돈(KBS)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는 **자특회계법**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운용됨
- **2003~2006년까지**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액 교통안전에 투자**

## ◆ 에너지회계법

- 에너지·자원 관련 각종 법령상 부과되는 과징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 에너지 안전관리, 복지, 연구개발 등에 활용

- ◆ 일본 : 도로교통법(부칙§16~21), 도로법 (§12~17), 교통안전대책기본법
  - 재원 : 「교통반칙통고제도\*」에 따라 납부되는 범칙금 수입 : 580억엔
    - \* 도로교통법 개정(1968)에 따라 신설된 제도. 운전자의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법원의 심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 활용사업 : 시행령(政令)\*에서 정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등에관한정령
      - 시설 예시: 신호등, 도로표지, 횡단보도·육교, 가드펜스 등
  - 대상·시기 : 지방 교통안전시설사업 공공단체 / 연 2회(9월·3월)
  - 배정기준 → 사고건수:인구:도로연장=2:1:1 가중치 부여 교부액 산정
  - 특이사항 : 특별회계(1983~2013)에서 일반회계(2014~)로 변경(법\* 개정)

## ◆ 이탈리아 : 도로법(Codice della Strada)

- 재원 : 도로법(§208)에 따라 국가공무원 단속 범칙금은 중앙정부(교통부) 귀속, 지자체 단속 범칙금은 지자체 활용 원칙 → 1,300백만유로
- 배정기준 : 매년 교통부·교육부·재경부 장관이 범칙금 할당비율 확정
  -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 결산내용 보고 의무
- 활용사업 : 중앙정부·지자체별 배정금 활용 목적·범위 상이

구분	법령	사업별 배정
중앙정부	도로법(§208)	~80% : 교통안전관리국 교통안전국가계획 정책시행 등 20% : 육상교통수단국 교통수단 안전 연구·홍보 등 7.5% : 교육부 학생 교통안전 교육·이륜차 면허교육 등 기타 : 경찰 사회보장연금 지원
지자체	도로법(§208·)	50.0% : 도로·교통안전사업 관련 임의분야 사용 가능 25.0% : 노면관리, 교통약자 안전확보, 안전교육 등 12.5% : 도로 표지판 관리 등 12.5% : 단속장비, 단속차량, 단속공무원 복장·장비 등

## ◆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교통안전 별도 예산 총괄

구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재원규모('16) <원화기준>	580억엔 <6,100억원>	1,300백만유로 <1.6조원>	940백만유로 <1.1조원>
회계처리	일반회계 (~'14까지 특별회계)	(미확인)	특별회계
활용사업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정책·연구· 홍보·시설개선 등	무인단속, 면허관리, 관련 시스템 개선 등
활용주체	(교통안전시설사업) 지방공공단체	중앙정부·지자체	중앙정부·지자체
배정기준	가중치* 부여·산정 *사고건수·인구·도로길이	관계부처* 장관이 할당 * 교통부, 교육부, 재정부	무인단속 등에 확정액 지원 * 2억 49백만유로(3천억원)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대책기본법	도로법	예산법

## ◆ 왜 특별회계가 필요한가?

- 안정적인 교통안전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 짐

## ◆ 주요 포함내용

- 연간 7,500억원에 이르는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세입**으로 함
  - 현재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공무원 임금, 청사건립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
  - 장기적으로는 음주, 무면허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벌금까지** 세입에 포함되어야 함
- 최소 50% 이상은 지역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유도
  - 2003~2006년까지 사용되었을 당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예산이 신설되고, 관련단체의 지원, 전국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기자재 지급

### ◆ 국정기획위원회 의견 제시

- 시민사회단체(안실련·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명의로 “교통안전특별회계”필요성 및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 완료(광화문 1번가)

### ◆ 여론조사

- 교통범칙금·과태료의 교통안전 목적 사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방 법 : 네이버폼 등을 이용한 web 설문조사
- 기 간 : 2017.7.11.(화) ~ 7.31(월)
- 대 상 : **일반국민 100,000명 이상**
- 내 용 : 3~5문항으로 구성(범칙금·과태료의 목적사용 동의여부)
- 협조 요청사항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설문내용 수신 ⇒ **최소 10명 이상의 지인에게 관련내용 배포** ⇒ **최소 10명 이상 다시 재배포 요청**

## ◆ 입법발의

-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전 회원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
- 대표발의 : 국회의원 김관영(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
- 날 짜 : 7월중(예정)

## ◆ 공청회

-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기재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로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국회교통안전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필요성 부각
-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필요성 강조 및 입법화 지속 추진



### ◆ 언론활동 및 대국회 입법청원

-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한 보도 추진 및 100,000명 설문내용 국회의장에게 방문 전달
- 3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구내 국회의원에게 입법 필요성 설파
  - 3개 단체 임원 및 지역 책임자 간담회 개최 : 7.5(수)-모범·녹색, 7.6(목)-안실련

### ◆ 지역내 활동 전개

- 지역구 및 친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홍보 및 지지 요청
- 지정하는 날짜(대략 8~9월중)에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및 자료 전달, 본 법안의 지지 및 통과 요청
  - 자료는 방문 일정 확정시 이메일 또는 자료집 형태로 직접 지역 발송 예정임
- 국회 의원회관 방문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협조 요청 또는 일정 가능할 경우 공동 방문

- ◆ 하루에 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180만여명이 1년동안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하는 암울한 현실
- ◆ 교통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의 반복
- ◆ 더도 덜도 아니고, 안정적인 예산만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염원
- ◆ 교통안전 예산의 잃어버린 10년, 안전을 최우선 했던 참여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음
- ◆ 감사합니다.